

2013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전략회의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5일 '13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회의'를 시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비 31%(2863억원)가 증가한 1조2052억원의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여부 및 집행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노무비 구분관리로 공사의 경우 선금 지급률이 하락해 감리 등 운영계약에 대한 선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을 적극 독려, 추가 기성을 통한 부족분이 만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본부(62.4%)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단의 재정 조기 집행 목표 달성(60.1%)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영남본부 안재호 기자〉



콘크리트도상 궤도 사전 성능확인 시험 시행

- 3월부터 호남고속철도 궤도에 적용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5일 TM-Track System(유) 천안공장에서 호남고속철도에 적용할 콘크리트도상 궤도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에 앞서 시행한 사전 성능확인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은 국내에서 호남고속철도에 처음 적용되는 콘크리트 궤도구조(Rheda-2000)의 주요 구성품인 침목(Bi-block)과 레일체결장치(Vossloh System300-1)의 상호 연계성과 최적의 조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침목 생산공장에서 궤도조립(침목+체결장치+레일)을 시행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점검과정을 거쳤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재료는 신뢰성 및 시공품질이 향상돼 향후 호남고속철도가 최고속도 350km/h 운행시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성능확인 시험에는 사업시행부서인 충청·호남본부를 비롯해 호남고속철도 궤도감리단, 시공사 및 침목 제조사 등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도심 기존 철도 시설물(7개소) 철거 완료

기존 구조물 철거완료... 대전도심 3단계 원활한 공사 추진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24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내 기존 철도 시설물(하천교량 2개소, 도로 입체교차시설 5개소)을 안전하게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3단계 공사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선을 신설하는 공사로 시설물이 안전하게 철거됨에 따라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사업의 '14년 적기 완공의 기반이 마련됐다.

하복수 건설처장은 "기존 구조물 철거가 동절기에 시행되고 하부 교통 통행이 있어 시행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량도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장근로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그는 "도로교통 통제로 인해 사전에 관계기관(대전시, 경찰서, 버스운송조합, 교통방송 등)에 교통 통제 홍보 및 통제 계획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진행했고 안내판도 수시로 정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일과 후에도 신나고 재밌는 일터! 여기가 강원본부래요!

- 2013년 동호회 연간 활동계획 발표회 가져 -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지난 21일 지역본부 2층 상황실에서 본부장을 비롯해 동호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강원본부 동호회 연간 활동계획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본부의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됐으며 현재 활동 중인 강스매싱(탁구, 잔차사랑(MTB), 삼지서각회(서각))과 새롭게 구성된 낚시, 문화체험, 수영, 족구 등 8개 동호회가 참여했다.

발표회에서는 각 동호회별로 연간 주요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강스매싱 탁구동호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원주시장기 및 생활체육탁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잔차사랑 동호회는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참여직원들과 함께 시청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삼지서각동호회는 3분기 작품 전시회를 통해 판매한 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을 발표해 직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수영동호회는 본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수영장에 모여 새벽 운동을 진행할 것이고 문화체험동호회는 유적지 탐방 및 전시회 관람 등으로 여가활동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낚시동호회는 반기에 한번 바다낚시를 시행할 계획이며 족구동호회는 주말에 펼쳐지는 원주지역 동호회 친선경기리그에 참가할 계획이다.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 본부장은 "1부장 1동호회 가입을 통해 신바람 나고 화합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부탁했다.

분기별로 동호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강원본부가 공단의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발표회를 마쳤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박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과제 38건 접수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올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과제를 공모,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38건의 제안서를 접수했고 이 중 실효성이 있는 과제를 공정하게 검토해 3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구매조건부 개발과제로 선정되면 최대 10억원의 기술 개발비가 지원되고,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공단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건설현장에 설치하게 된다.

김광재 이사장은 2011년 취임사에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임기 중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그해 9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중소기업 기술협력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철도건설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건설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철도기술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되는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매조건부 개발 과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를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청렴 캠페인 전개

-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6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윤리실천 문안 어깨띠를 착용하고 양 기관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가 담긴 '청렴 핫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청렴사회 구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상호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맺은 이래 '깨끗한 기업 문화 정착 및 공기업 사회적 책임완수'를 목표로 공동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충청본부는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다짐대회도 가졌다.



철도RAMS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공학적 안전관리기법(ESM)에 대한 기술 접목의 기회 가져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지난 6일 본사 705호 교육장에서 철도 전문 기술력 향상 및 정보공유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철도RAMS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이드 레지스터 레일 아시아 한국지사 신석근 이사의 공학적 안전관리기법(Engineering Safety Management)인 RAMS와 관련한 공학적 안전관리, 발주처의 역할, 시스템 안전 보증 등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가 있었다.

특히 세미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강사와 참석자간 상호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RAMS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도원 기술연구소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스템의 안전을 보증하는 RAMS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있었으며 공학적 안전관리기법을 철도건설에도 도입, 철도사고 및 재해율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나아가 공단이 공인안전 인증기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철도연구원 윤학선 기자〉



김사용 교수요원, 순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녹색철도연구원 인재개발실 교수요원으로 교육 과정 개발·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사용님이 지난 22일 순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김 교수는 철도물류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물류학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인 '우리나라 철도의 노선별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의 발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의 학위 취득은 국내 철도물류분야 최초의 박사학위 영예이자, 우리 공단의 역량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녹색철도연구원 송다혜 기자〉